

무안군, FL테크닉사에 항공물류사업 직접투자 요청



무안군이 리투아니아 항공기 정비업체인 FL테크닉스사에 무안 MRO단지 내 항공물류사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제안했다.

리투아니아 방문 무안군 항공MRO사업 협력의지 재확인 김산 군수, 내년 상반기 AVIA솔루션그룹 회장 면담 추진

김산 무안군수와 임현수 무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주)무안에어로테크닉스 김주선 회장 등 무안MRO조성사업추진단 일행은 지난 5일부터 3박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 FL테크닉스를 방문해 질비나스 대표에게 이같이 공식 제안했다.

이에 대해 질비나스 대표는 "해외투자에는 점검해야 할 것이 많지만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물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곳으로 관심있게 보고 있다"며 "무안MRO단지에 대해 회사 네트워크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질비나스 대표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MRO사업을 추진했듯이 무안군에도 기술인력을 파견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협력의지를 재확인했다.

추진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무안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소개하며 항공정비와 토달 서비스 노하우를 갖춘 FL테크닉스사가 무안MRO의 핵심 협력사로 전문인력 파견과 정비 교육, 시스템 운영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향후 무안에 건설되는 항공정비시설과 유사한 카오나스 정비시설을

방문해 비행기 정비시설과 정비과정, 운영실태 등을 자세히 살펴봤다.

카오나스 정비시설은 4대의 비행기를 동시에 정비할 수 있고 15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아울러 무안 현경고등학교를 매입해 조성하려는 항공트레이닝센터의 모델이 될 BAA트레이닝센터를 방문해 항공 조정사 시뮬레이션 시설과 승무원들을 교육하는 시설도 시찰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세계 70개소에 항공정비시설을 갖추고 20년의 경험과 노하우로 확장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FL테크닉스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AVIA솔루션그룹 회장을 방문해 다각적인 직접투자를 요청하는 등 무안이 항공산업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목포시, 민간 협력 보건의료협의체 출범

겨울철 독감·코로나19 동시 유행 논의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 및 보건의료사업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목포시 보건의료협의체(위원장 소영호 목포시 부시장)가 출범했다.

목포시는 지난 8일 신안비치호텔에서 보건의료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보건의료협의체에는 목포시의사회, 목포시치과의사회, 목포시한의사회, 목포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남지부, 목포한국병원, 목포시의료원, 효노인전문요양병원, 목포아동병원, 목포시소방서 등 의료단체와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목포시의사회 김중현 회장은 "보건의료협의체는 상시 협의기구로 감염병 등 당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은 보건의료협의체 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데 이어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유행에 대비해 소아 확진자의 외래·입원·응급 등 의료 접근성 향상과 취약 시간대 소아 환자의 효율적인 대응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영암군종합사회복지관, 여성자치대학 통합 특강

재학생·수료생 60여 명 참석...지역혁신과 여성리더의 역할 주제

영암군은 지난 10일 영암군 여성자치대학 재학생과 수료생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혁신과 여성리더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우승희 군수는 영암형 혁신전략, 균형 혁신 핵심과제, 변화와 혁신을 위한 행정과 지역에서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지역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특성화임을 강조, 군민과 행정이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행복의 영암'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특히, 여성친화도시, 여성단체의 활동, 농부의 식탁, 먹거리, 월출산 달각시(우리지역 이야기를 담은 책), 그린피스(국제 환경보호단체) 여성들의 목소리, 여성리더로서의 지역에서의 역할 등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여성의 변화가 영암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학생들은 "영암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생동하는 미래의 영암을 그려보게 되었다"며 감사함과 든든함이 느껴졌다는 소감을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함평군, '행복함평 마을 만들기 경진대회' 개최

함평군이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2022 행복함평 마을만들기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함평군은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지난 10일 8개 마을 대표와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2 행복함평 마을만들기 경진대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발표회는 6개 읍·면 8개 마을이 참가했으며, 지역 주민들의 열띤 응원 속에 마을 대표가 마을 발전계획을 발표하며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회 결과 나산면 삼구마을이 금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월야면 신덕마을이 은상, 신광면 보전마을이 동상을 수상했다.

선발된 3개 마을은 '2023년 마을만들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며, 마을당 사업비 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 스스로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행복하고 활기찬 농촌 마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신안군, '퍼플섬'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대통령상' 수상



신안군은 10일 부산벡스코에서 열린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시상식에서 '퍼플섬'으로 문화관광분야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은 10~11일까지 진행되는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혁신 엑스포'와 연계해 개최됐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우수한 정책으로 성과를 낸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확산시킴으로써 각 지자체에서 접목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책경연 대회이다.

이번 경영대전에서는 1차 서류 심사, 2차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30개의 우수 사례가 선정됐다. 신안군은 컬러마케팅을 활용한 '퍼플섬' 반월·박지도의 성공요인을 바탕으로 문화관광 분야에서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번 수상은 UNWTO(유엔세계관광기구)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 한국관광의 별 '본상' 수상 등 신안군, 군민이 함께 가꾸고 노력한 결실이 인정받는 것으로 평가돼 더욱 의미가 있다.

'퍼플섬' 반월·박지도는 인구 100여 명의 외딴섬으로 2007년 김매금 할머니의 "두발로 걸어서 육지로 나오겠다"는 소망을 담은 안와도와 박지도를 잇는 목교가 설치되었다.

군은 2018년 "섬에 보라색 도라지 꽃 밖에 없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신안군에서는 섬 전체를 보라색으로 물들이는 과감한 컬러 마케팅을 시도하였다.

CNN·FOX뉴스·NASA·로이터·메트로 등

세계 유수의 언론이 먼저 주목하여 명소가 된 퍼플섬은 섬 전체를 온통 보라색으로 물들이고, 마을주민 모두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라색으로 '깔맞춤'하여 전세계에서 밀려드는 방문객을 맞이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 관광지 발돋움하게 되었다.

인구 약 130여명의 작은섬에 2018년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94만명, 주말 평균 약 2천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18억의 입장료 수입, 지역일자리 54개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발생하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 작은 섬들을 지역민과 함께 지역특색을 살려 가꾸어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살고 싶은 섬으로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신안=이덕주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